

광주시, 기아 오토랜드 '3년 연속 50만대 생산' 힘 보탠다

강기정 시장, 금호타이어 이어 기아 광주공장 방문 현장 소통 2년 연속 50만대 돌파 격려하고 트럼프발 관세폭탄 등 논의 노사 만나 미래모빌리티산업 확장·육성 중추적 역할 당부

강기정 광주시장이 금호타이어에 이어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방문하는 등 산업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 시장의 '기아 오토랜드 광주' 방문은 노사 협력으로 '2년 연속 자동차 생산 50만대 돌파'를 격려하고,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27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를 찾아 문재인 공장과 유상용·김희준 상무, 은용철 노조 지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전기차 생산라인 등을 견학했다. 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 화합으로 '2년 연속 자동차 생산 50만대 돌파'라는 큰 성과를 낸 '기아 오토랜드 광주' 임직원에게 축하의 말 전하고, 올해에도 지역경제 성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줄 것을 당부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2023년 54만1100대, 2024년 51만3782대의 자동차 생산 기록을 세우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50만대 생산 돌파 기록은 2014년~2015년 이후 9년 만의 대기록으로, 스포티지, 셀토스, 봉고트럭 등 인기차종의 판매 호조에 따른 것이다.

강 시장은 또 "14년 만의 폐거인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 유치'에 이은 국가전략사업 최종 확정으로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며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어 트럼프발 관세정책에 따른 자동차 산업계 대응 현황 등을 논의한 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광주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현재 지역 대표 산업인 자동차산업을 미래모빌리티산업으로 확장·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부터 미래차국가산단 조성과 자율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빛그린국가산단과 첨단산단의 수도권 기업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와 부품인증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자동차 및 모빌리티 기업의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 시험·평가, 인증 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 부품업체가 직접 특장차를 설계해 제작·생산할 수 있는 협업공장도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미래차전환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자동차 등 모빌리티 혁신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품질·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등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현장에서 직접 보니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는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다짐과 혁신 결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3년 연속 50만대 돌파 달성을 위해 광주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모빌리티 씽씽씽 혁신 다짐대회'에 참석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 문재인 공장장, 광주글로벌모터스 윤용현 대표 등 내빈들과 협력다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자동차업계 모빌리티 혁신 '씽씽씽'

완성차·부품사·유관기관 다짐대회

광주지역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 유관기관들이 '광주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모빌리티 씽씽씽 혁신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지금 여기서 광주 모빌리티 씽-씽-씽 혁신이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다짐대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문재인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장, 윤용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

표,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장, 흥종의 미래모빌리티산학연 협의회장,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등 완성차기업, 자동차부품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다짐대회 구호인 '씽씽씽'은 영문 "Think, Sync, Things"의 첫음절을 뜻했다. 첫번째 '씽'은 'Mobility of think'으로 '생각하는 모빌리티'를, 두번째 '씽'은 'Mobility of sync'으로 '초연결 모빌리티'를, 세번째 '씽'은 'Mobility of things'의

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담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날 광주시, 기아 오토랜드 광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부품기업 6개사,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등 11개 기업 기관은 지역 모빌리티산업 발전을 위한 '광주 모빌리티 혁신 공동협력 결의서'에도 서명했다.

광주시는 미래차 관련 인프라 및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완성차기업은 지역 부품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하며, 부품기업은 완성차기업과 협력해 부품산업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모빌리티산업 유관기관은 기업 맞춤형 지원 등 기술역량 강화 등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고소득자 더 벌고 저소득자 못 벌고...소득 양극화 어찌나

지난해 4분기 상위 20% 3.7% 늘어 하위 20%는 5년만에 최대폭 감소

지난해 4분기 고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은 늘어났지만,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1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이들의 재산소득(25.8%), 이전소득(7.8%)은 증가했고, 사업소득(-7.9%), 근로소득(-4.3%)은 감소했다. 특히 4분기 기준 근로소득이 1년전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19년(-6.2%) 감소한 이후 5년만으로,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세는

지난해 2분기부터 지속되고 있다. 소득 하위 20%의 저소득층이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이 3개 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1분위 가구가 실제 이용가능한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10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경우 지난해 4분기 기준 월평균 소득이 1119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늘었다.

5분위 가구의 경우 재산소득(15.5%), 사업소득(9.8%), 이전소득(6.4%), 근로소득(0.5%) 모두 1년전보다 증가했다.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891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은 줄고, 고소득 가구의 근로소득은 지속 상승세를 보이는 등 소득 양극화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통계청 관계자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줄어

든 것은 인구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고령 가구가 1년 전보다 대폭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출면에서는 오히려 근로소득이 줄어든 1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하고,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138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0% 증가했다.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0.3% 감소한 498만8000원을 기록했다.

이 밖에 4분위(상위 20~40%)가구 역시 소비지출액은 1.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지만, 1분위 가구의 경우 식자재 등 생활필수품이 고물가로 인해 비싸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ICON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설명회' 성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지난 25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설명회에는 지역 창업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 담당 매니저와의 1:1 현장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3~7년차에 접어든 도약기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지원자금을 제공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투자연계, 전문가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에서 오는 3월 13일까지 신청하고, 주관기관으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앞으로도 창업기업들이 혁신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GICON은 지난 2017년부터 9년 연속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창업 유관기관 및 투자사(VC·AC)와의 협력을 통해 창업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소상공인 기업체 평균 영업이익 2500만원

2023년 기준 전년비 19% 감소

지난 2023년 소상공인 기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이 2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잠정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그간 통계청과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해 공동으로 진행했지만, 올해에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기업등록명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기업등록명부에는 물리적 장소나 임금 중 사자가 없는 소규모 기업체가 포함돼 기존에 빠져 있던 소상공인이 조사에 포함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2023년 기준 596만1천개로 조사 기준이 바뀌면서 전년(사업체 412만 4000개)보다 늘었다.

경영실적을 보면 기업체 당 연간 영업이익은 2500만원으로 전년(3100만원)보다 19.35% 줄었고, 매출액은 1억 9900만원으로 14.91% 감소했다.

소상공인 기업체 5개 중 3개는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를 보유한 소상공인 기업체는 전체의 60.9%로 전년(59.3%)보다 소폭 높아졌으며 부채액은 1억 9500만원으로 5.41% 늘었다.

기업체 종사자 수는 955만 1000명으로 전년(713만 5000명)보다 증가했고, 기업체 당 종사자 수는 1.60명으로 전년(1.73명)보다 줄었다. 이는 모집단인 기업체 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다.

업종별 기업체 수를 보면 도소매업이 200만개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업 85만 4000개, 숙박·음식점업 79만개, 제조업 55만 4000개, 건설업 55만 1000개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1.75 (-19.34)
↓ 코스닥	770.85 (-0.56)
↑ 금리(국고채 3년)	2.592 (+0.001)
↑ 환율(USD)	1441.90 (+8.80) (오후 5시 55분 기준)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부동산 시장 상승 조짐

필요시 대출 제한 등 조치"

금융당국이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인다고 평가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금융권협회, 주요 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 같이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토허제 완화 등으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관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하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삼겹살 데이 맞아 삼겹살·목살 할인행사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삼겹살과 목살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점은 삼겹살 데이(3월 3일)를 앞두고 '삼겹살·목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보성 녹돈 매장에서는 '보성 삼겹살·목살' 등을 4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현대차 다음달 1~14일 2주간 신입사원 채용

현대차는 다음 달 1~14일 2주간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은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 지원 등 총 3개 부문, 68개 직무에서 모집을 시작한다.

현대차는 향후 울산 EV(전기차) 전용 공장 준공,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으로 생산과 제조 시스템의 기술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생산·제조 부문 인재를 집중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현대차는 다음 달 7일 현대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열어 생산·제조 부문을 중심으로 채용 직무를 소개하고, 예비 지원자와 현직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채용 설명회 사전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현대차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 현대차는 이번 채용부터 장애인 신입 특별채용을 도입한다. /연합뉴스